

현대모비스가 쏘아올린 구조조정 신호탄

작년부터 시작된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작업이 올해 초 현대모비스의 일방적인 발표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프랑스 기업 'OP모빌리티'입니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노동자들은 매각추진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IHL)지회, 구미지부 김천현대모비스지회(유니투스 김천램프공장)는 매각저지 공동투쟁기구를 꾸리고 투쟁에 나섭니다. R&D 사무연구직 노동자들도 지회를 설립하고 생산직 노동자들과 공동투쟁에 함께 나섭니다.

현대모비스는 램프에 이어 범퍼사업부 매각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에어백, 시트벨트, 제동, 조향 부품의 매각 가능성도 꾸준히 나옵니다. 2022년 현대모비스가 모트라스(모듈)·유니투스(부품) 2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일찍이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희생양은 자회사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거셨습니다.

이제 현대차그룹의 부품사 구조개편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디까지 확대될 지 불투명합니다. 현대모비스 램프매각이 전체 부품사 노동자의 삶을 뒤흔들고 민주노조 존폐를 가르는 신호탄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현대차그룹 구조개편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대차그룹은 피지컬AI,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필수인데, 현대차그룹은 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재벌총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나, 정의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0.33% 불과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계열사들간의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불안정한 지배구조입니다. 정의선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탄'(자금)이 필요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의 자회사 같은 고용 형태를 두는 이유는 불법파견 범죄 회피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회사 매각 등 구조조정이 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모비스 원청은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자회사) 형태로 인적 구조조정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본의 산업정책 전환, 재벌총수의 경영지배권을 위한 자금 마련에 노동자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본의 결정 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도 자회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현대모비스 본사앞에 모여 책임을 묻고 직접 교섭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투쟁 "이렇게 희생될 수 없다"

현대모비스는 램프 노동자들에게 위로금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서둘러 끝내려 합니다. 매각 당사자이자 투쟁 주체인 김천(램프)지회 집행부는 공동투쟁을 파기하고 교섭을 한다면 독단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치졸한 갈라치기 전략에도 현대아이에이치엘 조합원들은 흔들림없이 20일 넘는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절박감과 민주노조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램프 매각투쟁이 부품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5/18) 유니투스 총주, 평택, 김천(에어백), EBS천안 4개 지회가 총파업을 결행하고 김천으로 향합니다. 같은 날 모이는 모트라스 9개 지회도 빠르게 쟁의권을 확보하고 6월 총파업을 준비합니다. 현대위아 자회사 테크젠·모비언트 5개 지회 동지들도 이날 김천에 모여 투쟁을 결의합니다. 기아차지부, 만도지부 동지들이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투쟁에 힘을 실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합니다.

5월 19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램프사업부 매각투쟁을 현대모비스 구조개편 대응 투쟁으로 확대, 재편하고 직접 투쟁을 지휘하는 방안을 논의, 결정합니다. 오늘 김천 투쟁은 같은 위기의식을 갖는 노동자들이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동자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재벌총수 정의선에게 있습니다. **동향**